

기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계획 및 출산과 관련된 요인

정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유석*
(한림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여성가족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둘째자녀 출산계획 및 실제출산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였다. 출산계획과 관련하여, 연령이 낮고, 결혼만족도와 남편의 가사분담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남편 또는 부부가 자녀교육 문제를 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 출산계획을 가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모, 시모가 생존한 경우, 사교육비 지출수준이 낮으며, 자녀를 일찍 가져야 한다고 인식할수록 출산계획을 갖는 확률도 높게 나타났다. 둘째자녀 출산과 관련된 요인은 출산계획과 관련된 요인과 대체로 유사하였다. 연령대가 낮고, 전업주부인 경우, 결혼만족도가 높고 자녀교육에 관해 남편의 참여가 높은 경우 출산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교육비 지출이 적을수록 둘째자녀를 출산할 확률이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둘째자녀 출산율을 증진시키기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주요용어: 저출산, 둘째자녀, 출산계획, 둘째출산, 추가출산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둘째자녀 출산 제약요인 분석과 정책방안”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의 일부를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최유석, 한림대학교(yschoi@hallym.ac.kr)

■ 투고일: 2013.1.30 ■ 수정일: 2013.3.14 ■ 게재확정일: 2013.3.18

I. 서론

통계청의 미래 인구변화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2030년 5,216만명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통계청, 2011). 이러한 인구감소는 출산율이 크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 한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수를 나타내는 지표인 합계출산율은 1983년부터 2명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1년에는 1.24명을 기록하고 있다(통계청, 2012).

저출산으로 인해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우리사회의 성장잠재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이다. 출산율이 낮아져서 생산가능인구의 유입과 생산활동을 담당하는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우리사회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약화될 것이다. 현재 우리사회는 인구의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해 사회보장에 지출하는 비용이 증가하는 반면, 노인층을 부양하는 젊은 인구의 유입은 줄어들고 있다. 이는 일인당 노인부양 부담을 증가시키고, 우리사회의 발전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있다(이삼식·이소정, 2011).

현재 정부에서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두 차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5; 2010). 1차 계획에서 정부는 취업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에 초점을 맞추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저출산 문제해결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보건복지부, 2005; 서문희 외, 2009). 이를 위해 정부는 양육지원기관의 양과 질의 확보, 이용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지원금을 확대하는 방향에 초점을 두었다. 2차 계획에서는 1차 계획에서 시행한 정책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정책대상자와 지원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보건복지부, 2010; 이삼식·이소정, 2011; 송유미·이제상, 2011).

이러한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셋째자녀 출산장려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셋째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은 비용측면에서 효율적인 방안일 수 있다. 둘째자녀를 가진 여성이 셋째자녀를 출산하는 부담은 첫째자녀를 가진 여성이 둘째자녀를 갖는 부담보다 적기 때문이다(김정석, 2007; 신인철 2009; 조영태, 2009; 정성호, 2012). 그러나 한자녀 가족의 두자녀 가족으로의 이행률이 낮은 상황에서 셋째자녀 장려정책만으로는 현재의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책대상자 선정에서 실제 출산이 가능한 집단을 선정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을 증진시킬 필요성이 있다.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자녀만 있는 가정의 여성에게 둘째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2012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1년 셋째자녀 출산율이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2). 반면 첫째자녀 출산과 둘째자녀 출산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2). 우리나라의 경우 결혼을 하면 대부분 자녀를 계획하거나 낳는 것이 일반적이다(김두섭 외, 2007; 신윤정, 2008). 그러나 첫째자녀를 출산한 여성이 둘째자녀를 출산하는 비율은 낮다(신윤정, 2008). 따라서 둘째자녀 출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계획 및 출산과 관련된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둘째자녀 출산계획이 있는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 간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기혼여성 중에서 둘째자녀를 출산한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 간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패널자료분석을 통하여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둘째자녀 출산율을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검토

기존 연구에서 출산과 관련된 요인은 크게 인구사회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 심리적 요인, 가치관적 요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측면에서는 여성의 연령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차승은, 2008). 여성의 연령이 높을수록 가임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차승은, 2008). 가구내 자녀의 성별, 특히 아들의 존재는 과거에는 출산에 영향을 미쳤으나(김정석, 2007), 현재에는 그 영향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원, 2009). 여성의 학력 또한 출산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병구 외, 2007; 류기철·박영화, 2009). 상대적으로 높은 학력을 지닌 여성은 결혼을 미루거나, 취업으로 인해 한자녀에 만족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요인과 관련하여 노동시장의 불확실성과 불안한 경제전망은 출산율을 낮춘다(이삼식 외, 2005).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과 가구소득이 불안정하다는 인식으로 인해 자녀를 출산/양육하는데 필요한 미래의 비용을 계획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가구경제의 안정성은 추가출산율을 높이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김정석, 2007). 따라서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정책이 출산과 양육부담을 얼마나 경감시키는지에 따라 출산율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미래의 지출부담 뿐만 아니라 현재 소득 또한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하나, 2010). 소득은 양육자원의 상한선을 규정하므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증가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양육비 보조프로그램은 출산율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아동양육비용이 증가하면 여성 출산율은 감소한다(Blau & Robins, 1989; Ogawa et al., 2009; 김은정 외, 2011; 최윤경·장영은, 2010; 차승은, 2008). 따라서 보육/교육비 절감은 출산의향을 높이므로(신윤정, 2008), 아동양육비 보조프로그램은 출산율 증가에 기여한다(Hann & Wrohlich, 2011). 또한 다양한 아동양육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이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Del Boca, 2002).

심리적인 요인으로는 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나 우울의 영향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서미정, 2010; 임현주 외, 2011). 자녀양육으로 인한 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해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이는 추가 출산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어머니의 육체적, 심리적인 양육스트레스를 덜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정혜은·진미정, 2008). 아버지의 양육참여 이외에도 부부관계 만족도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덜어주어 후속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유진, 2007).

가족 및 자녀에 대한 가치관 또한 출산과 관련을 맺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소영, 2005; 이정원, 2009; 정혜은·진미정, 2008). 비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을 가진 경우, 출산계획 및 출산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윤소영, 2005). 또한 자녀는 정서적인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 둘째출산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정혜은·진미정, 2008).

출산계획과 출산 의사결정에서 아버지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임신/출산과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다. 아버지는 직접적으로 둘째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또한 어머니의 출산의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감소시켜,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안재진, 2011; 정혜은·진미정, 2008).

또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부부관계 만족도를 높여 출산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강유진, 2007). 남편은 주로 아내의 요청에 따라 가사일에 참여하거나, 양육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행동한다. 부부가 공동으로 의견을 나누고 함께 양육/교육방식을 결정하는 부부간의 협력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이고 부부만족도를 향상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부부의 협력적인 양육 및 교육방식이 출산의도 및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는 출산계획 및 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을 밝힌 점에서 상당한 성과를 축적하여 왔다. 그러나 분석자료의 한계 등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첫째, 많은 연구에서 무자녀와 한 자녀, 두자녀 가정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분석하였다(신인철, 2009; 김미정 외, 2010; 임현주 외, 2011; 서미정, 2010; 신윤정, 2008). 그러나 가정내 자녀수에 따라 출산으로 이행하는 부담과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자녀수에 따른 출산 제약요인을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김정석, 2007). 특히, 결혼한 부부는 대부분 한 자녀를 낳으므로(신윤정, 2008), 둘째자녀 출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자녀 출산만을 별도로 분석하는 연구의 장점은 출산을 연기하거나, 무자녀가족이 포함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배제하여 출산행동을 좀더 명확히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이다(Torr & Short, 2004; 강유진, 2007). 예를 들면, 무자녀에서 한자녀로 이행시 경제적 변수는 중요하지 않으나, 한자녀에서 두자녀로 이행시 경제적 변수가 중요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상이한 자녀수를 가진 사례를 모두 통합하여 분석할 경우, 경제적 변수가 미치는 고유한 영향력을 엄밀히 밝히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한자녀 가정만을 분석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주로 후속출산 ‘의도’ 또는 ‘계획’에 초점을 맞춰왔다. 후속출산의도는 실제 출산행위에 영향을 미치며(Ajzen, 1991; Schoen et al., 1999), 후속출산의도가 강할수록 출산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Scheon et al., 1999). 그러나 출산의도가 출산행위로 이행하는 비율은 무자녀 가정에 비해, 한자녀 가정의 경우 더 낮은 가능성이 있다. 둘째자녀 출산은 첫째자녀 출산에 비해 다양한 상황적 요소를 고려하여, 후속출산을 미루거나 단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Brodman et al., 2007). 따라서 한자녀 가정의 후속 출산의도만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것은 출산을 제고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가족패널조사자료를 이용하여 한자녀 가정의 후속출산 계획유무와 관련된 요인뿐만 아니라, 한자녀 가정을 추적하여 둘째자녀를 출산한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 간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연구에서 많이 다루지지 않았던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포함하여 둘째자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분석자료로 여성가족패널조사를 활용하였다. 여성가족패널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64세 여성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가족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추적조사하는 패널조사이다(박수미 외, 2008: 15). 1차년도 조사는 2007년 9월부터 2008년 2월 기간 동안에 수행되었으며, 전국 9,084가구 10,013명의 여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박수미 외, 2008: 27). 2차년도 현지조사는 2008년 10월부터 2009년 6월 기간 동안 진행되었다. 1차년도 분가가구를 포함하여 7,750가구 8,666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다. 2차년도 표본유지율은 가구기준 84.5%, 개인기준 80.8%였다(이택면 외, 2009: 59). 한편 3차년도 조사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진행되었으며, 7,331가구에 거주하는 8,376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다. 3차년도 조사결과 표본유지율은 가구의 경우 79.1%, 가구원의 경우 74.6%를 나타냈다(이택면 외, 2011: 56-57).

2. 변수의 정의와 측정

<표 1>은 연구에 활용된 변수의 정의와 측정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2007년 1차 여성가족패널조사는 45세 미만 여성을 대상으로 자녀수, 출산계획, 출산계획시기, 계획자녀수, 출산계획이 없는 이유 등 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설문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설문항목을 2008년 2차조사와 2010년 3차조사에서도 반복하여 조사하였다.

출산계획 및 출산과 관련된 요인으로 응답자의 연령, 교육수준, 본인과 남편의 취업여부, 2007년 상반기 가구소득, 건강상태, 응답자의 어머니, 시어머니의 생존여부 등 인구학적 요인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부부관계와 관련된 항목으로서 응답자의 결혼생활 만족도, 남편의 가사분담 만족도, 자녀교육 의사결정자 등을 살펴보았다. 응답자의 가족가치관과 관련하여 '결혼하면 자녀를 일찍 갖는 것이 좋다'는 항목에 관한 응답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자녀사교육비 지출을 월간 총금액으로 측정하였다.

표 1.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변수명	정의 및 측정방법
출산계획	출산계획 유무(있다, 없다, 모른다)
출산계획 시기	1년 이내, 1~2년, 2~3년, 3~4년, 5년 후부터, 모름
계획자녀수	계획하고 있는 자녀수(현재자녀 포함)
연령	응답자의 연령(20대, 30대, 40대)*
교육수준	응답자의 교육수준(고졸미만, 고졸, 대학재학 이상)
응답자 취업여부	취업여부(했다, 안했다)
남편 취업여부	취업여부(했다, 안했다)
가구소득	2007년 상반기 가구소득(만원)*
건강상태	건강상태(매우 건강(5), 건강(4), 보통(3), 건강하지 않음(2), 매우 건강하지 않음(1))
자녀교육 의사결정	주된 의사결정자(본인이 주로, 남편이 주로, 부부가 함께, 다른 가족과 함께)
결혼생활 만족도	결혼생활 행복도 (매우 행복하다(7) ~ 매우 불행하다(1))
가사노동 분담 만족도	남편의 집안일 분담 만족도(매우 만족(5), 대체로 만족(4), 보통(3), 별로 만족하지 않음(2), 전혀 만족하지 않음(1))
모친 생존여부	생존여부(생존, 사망)
시모 생존여부	생존여부(생존, 사망)
가족관련 가치관	'결혼하면 자녀를 일찍 갖는 것이 좋다'(매우 그렇다(4), 조금 그렇다(3), 별로 그렇지 않다(2), 전혀 그렇지 않다(1))
자녀 사교육 비용	월간 자녀 사교육비용(만원)

*주: 응답자의 연령은 기술통계분석에서는 연속변수로, 이항로지분석에서는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상반기 가구소득은 기술통계분석에서는 만원 단위로, 이항로지분석에서는 천만원 단위로 변환하여 분석하였음.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가지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2007년 1차 여성가족패널조사를 이용하여 45세 미만의 기혼여성 중에서 자녀수가 1명인 여성 927명을 대상으로 둘째자녀 출산계획에 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자녀출산계획과 관련하여 출산계획 유무, 출산계획시기, 계획자녀수, 출산계획이 없는 이유 등에 관한 응답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는 출산계획과 관련하여 '모른다'고 응답한 115명을 제외한 812명을 대상으로 출산계획과 관련있는 요인을 밝히기 위하여 t 검증, 카이자승 검증, 이항로지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둘째, 1차조사에서 한자녀를 가진 여성을 2차/3차조사에서 추적한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둘째자녀 출산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였다. 여성가족패널 1차조사에 응답한 한자녀를 가진 기혼여성 중에서 2008년 2차조사와 2010년 3차조사에 모두 응답한 여성 648명을 대상으로 패널자료를 구축하였다. 먼저 1차조사 이후, 2차/3차 각 조사시점까지 새로 임신/출산을 경험한 비율과 출산계획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또한 1차조사 출산계획에 따라 이후 2차/3차조사에서 임신/출산을 경험한 비율을 분석하였다. 둘째자녀 출산 요인에 관한 분석은 2차조사를 포함하여 3차조사 시점까지 새로 임신/출산한 여성(n=250)과 그렇지 않은 여성(n=298)간의 차이점을 t 검증, 카이자승 검증, 이항로지회귀분석을 통하여 밝히고자 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하여 Stata SE 11을 이용하였다.

IV. 둘째자녀 출산계획 분석결과

1. 기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계획

<표 2>는 1차조사에 응답한 한명의 자녀를 가진 45세 미만 기혼여성 927명을 대상으로 출산계획에 관한 설문내용을 분석한 결과이다. 절반이 조금 안되는 45%의 여성이 출산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출산계획시기는 80%정도의 여성이 2년 이내라고 응답하였다. 계획자녀수는 87%의 여성이 현재자녀를 포함하여 2명으로 응답하였다.

한편 출산계획이 없는 여성(n=394)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하였다. '경제적인 문

제'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현재 자녀로 충분해서', '나이가 많아서'의 순으로 출산계획이 없는 이유를 들었다.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한 교육비 등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둘째자녀 출산을 기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기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계획(n=927)

출산계획(n=927)	빈도	%
모름	115	12.4
있다	418	45.1
없다	394	42.5
출산계획 시기(n=418)		
모름	1	0.2
1년 이내	179	42.8
1-2년 사이	153	36.6
2-3년 사이	64	15.3
3-4년 사이	18	4.3
5년 후부터	3	0.7
계획 자녀수(현재자녀 포함)(n=418)		
모름	3	0.7
2명	365	87.3
3명	46	11.0
4명	4	1.0
출산계획이 없는 이유(n=394)		
모름	2	0.5
경제적인 문제	153	38.8
건강상의 문제	23	5.8
나이가 많아서	66	16.8
직장생활에 지장	5	1.3
현재 자녀로 충분해서	98	24.9
자녀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17	4.3
자녀를 잘 키울 자신이 없어서	29	7.4
배우자가 싫어함	1	0.3

2. 출산계획유무에 따른 기혼여성의 특성비교

두 번째 분석에서는 출산계획이 있는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 간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분석에서는 여성가족패널 1차조사에서 한자녀가 있는 45세 미만 기혼여성 927명 중에서, 출산계획과 관련하여 '모른다'고 응답한 115명을 제외한 812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둘째자녀 출산계획을 가진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 간에 인구학적 특성, 부부관계, 가족가치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t-검증 및 카이자승 검증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표 3>은 그 결과를 나타낸다. 절반이 조금 넘는 418명의 여성이 둘째 자녀를 출산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평균연령은 출산계획이 없는 여성이 약 36.9세로 출산계획이 있는 여성에 비해 약 5세 정도 많았다. 또한 출산계획이 있는 여성의 건강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07년 상반기 가구소득은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다.

결혼생활 만족도와 관련하여 출산계획을 가진 여성이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가사분담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출산계획을 가진 여성이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이 가사분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상황이 둘째자녀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연령/세대효과와도 관련이 있다. 상대적으로 젊은 부부의 경우, 남편의 가사분담 정도가 높은 점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3. 출산계획 유무에 따른 한자녀 기혼여성의 특성(n=812)

구분	출산계획 있음 (n=418)	출산계획 없음 (n=394)	t
연령	31.6 (3.8)	36.9 (4.5)	-18.1**
상반기 가구소득	1824.0 (1667.4)	1886.9 (1277.0)	-0.6
건강상태	4.1 (0.8)	3.9 (0.9)	3.7**
결혼생활 만족도	5.6 (1.1)	5.1 (1.2)	6.0**
남편 가사분담 만족도	3.4 (1.1)	3.1 (1.1)	3.8**
가족가치관	2.9 (0.8)	2.8 (0.8)	1.7†
자녀 교육비	8.7 (19.8)	21.9 (29.1)	-7.5**

표 3. 계속

구분	출산계획 있음 (n=418)	출산계획 없음 (n=394)	χ^2
교육수준			17.1**
고졸 이하	6 (1.4)	20 (5.1)	
고졸	154 (36.8)	177 (45.2)	
대학재학 이상	258 (61.7)	195 (49.7)	
본인 취업	95 (22.7)	108 (27.4)	2.4
남편 취업	391 (93.5)	368 (93.4)	0.0
자녀교육 의사결정			29.1**
본인이 주로	153 (36.7)	207 (52.5)	
남편이 주로	14 (3.4)	8 (2.0)	
본인과 남편이 함께	205 (49.2)	162 (41.1)	
다른 가족이 주로	2 (0.5)	3 (0.8)	
비해당	43 (10.3)	14 (3.6)	
어머니 생존	393 (94.0)	337 (85.5)	16.1**
시어머니 생존	380 (90.9)	322 (81.7)	14.6**

주: † p<0.1, * p<0.05, ** p<0.01, 상단패널(t 검증)에서 괄호 안의 수치는 표준편차, 하단패널(카이제곱 검증)에서 괄호 안의 수치는 비율을 나타냄.

가족가치관 중에서 '결혼하면 자녀는 일찍 낳아야 한다'는 진술에 대한 응답과 관련하여, 출산계획이 있는 여성이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교육비 지출과 관련하여, 출산계획이 없는 여성은 월평균 약 22만원을 지출한 반면, 출산계획이 있는 여성은 약 9만원 정도를 지출하였다. 첫째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출부담이 클수록 둘째 자녀 출산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처음부터 한명의 자녀만 계획하는 부부의 경우, 한명의 자녀에게 집중적으로 교육투자를 하는데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교육수준과 관련하여 대학재학 이상 학력을 가진 응답자 비율은 출산계획이 있는 여성이 출산계획이 없는 여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과 남편의 취업여부는 출산계획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녀교육 의사결정주체는 출산계획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계획이 없는 여성의 경우, 본인이 주로 결정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출산계획이 있는 여성의 경우 남편과 공동으로 결정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녀교육 등 남편의 참여가 적극적인 경우, 자녀교육 부담이 감소하여 출산을 계획하기가 더 용이하기 때문이다. 응답자의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생존해 계시는 비율은 출산계획을 가진 여성의 경우 조금 더 높았다.

3. 출산계획 관련요인 이항로지분석

개별요인의 효과를 좀더 엄밀히 파악하기 위하여 출산계획을 종속변수로 로짓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4>는 그 결과를 보여준다. 연령이 적을수록 둘째자녀 출산계획을 가질 확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교육수준은 출산계획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와 남편의 취업여부, 가구소득, 기혼여성의 건강상태도 출산계획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녀교육에 관한 의사결정은 둘째자녀 출산계획과 관련이 있었다. 여성 본인이 자녀교육에 관한 의사결정을 전담하는 경우에 비해, 부부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 둘째자녀 출산계획을 가질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이 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여성 본인이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 비해 출산계획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1$). 첫째자녀 출산이후 자녀양육 및 가사노동 부담은 둘째자녀 출산계획

에 영향을 미친다. 자녀교육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 둘째자녀 출산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표 4. 기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계획에 대한 이항로짓분석(n=812)

구분		회귀계수	표준오차
상수		-5.777**	0.942
연령(40대)	20대	3.077**	0.384
	30대	2.107**	0.319
교육수준(고졸 미만)	고졸	0.034	0.665
	대학재학 이상	0.448	0.668
응답자 취업여부(미취업)		-0.010	0.206
남편 취업여부(미취업)		-0.280	0.363
가구 상반기소득		0.026	0.057
건강상태		0.068	0.106
자녀교육 의사결정 (본인)	남편	1.038†	0.584
	공동	0.373*	0.177
	다른 가족원	0.564	1.230
결혼만족도		0.262**	0.076
가사분담만족도		0.110	0.084
모친 생존여부(사망)		0.646*	0.300
시어머니 생존여부(사망)		0.510*	0.255
가족가치관		0.273**	0.101
사교육비 지출		-0.020**	0.005
Log Likelihood		-428.4	

주: † p<.1, * p<.05, ** p<.01, 괄호 안은 터미변수에서 기준변수를 나타냄.

결혼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둘째자녀 출산계획을 가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편의 가사분담에 대한 기혼여성의 만족도는 출산계획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가사분담에 대한 만족도는 결혼생활 만족도의 하위항목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두 변수를 동시에 투입할 경우 결혼생활 만족도의 강한 효과로 인해 남편의 가사분담 만족도 효과가 희석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별도의 분석(부록 1)에서는

남편의 가사분담 만족도만 분석에 활용하였다. 그 결과, 남편의 가사분담에 만족할수록 출산계획을 가질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사노동 등 양육부담으로 인해 출산을 꺼리는 상황에서 둘째자녀 출산을 높이기 위해서는 남편의 가사분담 참여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기혼여성의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생존한 경우, 사망한 경우에 비해 출산계획을 가질 확률이 더 높았다. 상대적으로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가치관과 관련하여 '결혼하면 자녀를 일찍 낳아야 한다'는 진술에 찬성할수록 둘째자녀 출산계획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녀교육비 지출이 많을수록 출산계획을 가질 확률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자녀를 출산한 이후 자녀교육비 지출부담이 큰 경우, 둘째 자녀 출산을 기피하는 것이다.

V. 둘째자녀 출산 분석결과

1. 출산계획 및 임신/출산경험

2007년 여성가족패널 1차조사에 응답한 45세 미만 한자녀를 가진 기혼여성 중에서 2008년 2차조사와 2010년 3차조사에 모두 응답한 여성 648명을 대상으로 패널자료를 구축하였다. 여성가족패널 2차조사에서는 지난 1차조사 이후(2007~2008) 임신/출산경험 등 출산력에 관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3차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2차조사 이후 임신/출산경험을 조사하여 2008~2010년 기간 동안 분석대상 여성의 출산력을 재구성할 수 있었다.

<표 5>는 각 조사연도별 출산계획 및 임신/출산 경험을 나타낸 것이다. 각 조사연도에서 한번이라도 임신 또는 출산을 경험한 여성은 임신/출산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하였다. 먼저 출산계획과 관련하여 한자녀를 가진 기혼여성 648명 중에서 1차년도에는 약 47%인 307명이 둘째자녀 출산계획을 갖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출산계획을 가진 응답자 비율은 이후 약 25%, 10%로 감소하였다. 그 이유는 상당수의 기혼여성이 2명의 자녀를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각 조사시점 이후 둘째자녀를 임신/출산을 한 기혼여성의 상당수는 추가적인 출산계획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표 5. 기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계획 및 임신/출산 경험(n=648)

구분	1차조사 (2007)		2차조사 (2008)		3차조사 (2010)		누적 출산경험 2차, 3차(2010)	
	빈도	%	빈도	%	빈도	%		
출산계획								
있음	307	47.4	161	24.9	62	9.7		
없음	256	39.5	410	63.3	535	83.6		
모름	85	13.1	77	11.9	43	6.7		
임신/출산 경험								
있음			152	23.5	125	19.3	250	38.6
없음			496	76.5	523	80.7	398	61.4

임신/출산 경험과 관련하여 2008년에 이루어진 2차조사에서는 648명 중에서 약 24%에 달하는 152명의 여성이 1차조사 이후 임신/출산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2010년 3차조사에서는 2008년 이후 2년 기간동안 약 19%에 해당하는 125명이 임신/출산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누적비율을 보면, 1차조사 이후 3차조사 기간(2007~2010)까지 약 3~4년 이내에 39%에 해당하는 250명이 한번이라도 임신/출산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¹⁾ 이후에 진행할 둘째자녀 출산과 관련된 요인분석에서는 분석대상기간을 3차년도까지 포괄하여 2차, 3차연도에 한번이라도 임신/출산한 경험이 있는 여성 250명과 그렇지 않은 여성 398명의 특성을 비교하여 임신/출산과 관련된 요인을 탐색하였다.

한편, <표 6>은 응답자 중에서 1차조사에서 출산계획이 있는 여성 중에서 얼마나 임신/출산을 경험하였는지, 출산계획이 있었지만 3차조사 시점까지도 둘째자녀를 갖지 못한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준다. 1차조사에서 출산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307명 중에서 2차조사 시점까지 임신/출산을 경험한 비율은 약 43%정도였다. 2차조사 이후 3차조사 기간에 임신/출산을 경험한 비율은 29%였다. 따라서 1차조사 이후 3차조사 시점까지 한번이라도 임신/출산을 경험한 비율은 198명으로 약 65%정도가 3~4년 이내에 출산계획을 실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출산계획을 가진 여성 중에서 약 36%에

¹⁾ 2차, 3차 각 조사연도에서 임신/출산을 경험한 응답자수를 합한 277명이 아닌, 250명인 이유는 2차연도에 '임신했다고 응답한 여성 중에서 3차연도에 '출산했다고 응답한 여성과 2차연도에 임신/출산한 여성 중에서 3차연도에 새로 임신/출산한 여성 등 중복되는 응답자가 있기 때문이다.

달하는 109명은 3~4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둘째자녀를 갖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차조사 시점에서는 출산계획이 없거나 모른다고 응답한 341명의 여성 중에서 52명은 3차조사 시점까지 임신/출산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기혼여성의 1차조사 출산계획에 따른 임신/출산 경험(n=648)

구분		둘째자녀 출산계획(1차 조사)			
		있음	없음	모름	합계
2차조사 임신/출산 경험	있음	131 (42.7)	7 (2.7)	14 (16.5)	152 (23.5)
	없음	176 (57.3)	249 (97.3)	71 (83.5)	496 (76.5)
3차조사 임신/출산 경험	있음	89 (29.0)	18 (7.0)	18 (21.2)	125 (19.3)
	없음	218 (71.0)	238 (93.0)	67 (78.8)	523 (80.7)
3차조사까지 (누적)임신/출산경험	있음	198 (64.5)	22 (8.6)	30 (35.3)	250 (38.6)
	없음	109 (35.5)	234 (91.4)	55 (64.7)	398 (61.4)
합계		307 (47.4)	256 (39.5)	85 (13.1)	648 (100.0)

2. 둘째자녀 임신/출산 관련요인 분석

가. 둘째자녀 출산유무에 따른 기혼여성의 특성비교

2차/3차 조사결과 1차조사 이후 임신/출산한 경험이 있는 여성은 250명으로 648명 중에서 약 39%를 차지했다. <표 7>은 1~3차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둘째자녀를 새로 임신/출산한 여성(n=250)과 그렇지 않은 여성(n=398) 간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밝히기 위하여 t검증과 카이제곱 검증을 수행한 결과이다. 각종 인구학적 특성 등 기혼 여성의 특성은 1차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1~3년의 시차를 뒀으로써 2007년의 여성의

개인적, 가구특성과 1~3년 후인 2008~2010년의 둘째자녀 임신/출산과의 관련성을 엄밀하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7. 둘째자녀 출산유무에 따른 한자녀 기혼여성의 특성

구분	출산한 여성 (n=250)	출산하지 않은 여성 (n=398)	t
연령	31.3 (3.4)	35.7 (4.9)	-13.5**
상반기 가구소득(2007년, 만원)	1811.5 (1575.7)	1901.3 (1344.8)	-0.7
건강상태	4.1 (0.7)	3.9 (0.9)	3.1**
결혼생활 만족도	5.7 (1.1)	5.3 (1.2)	4.9**
남편 가사분담 만족도	3.3 (1.0)	3.2 (1.1)	1.5
가족가치관	2.9 (0.8)	2.9 (2.8)	-0.5
자녀 교육비	8.2 (18.1)	19.4 (29.7)	-6.0**
			χ^2
교육수준			
고졸 이하	2 (0.8)	15 (3.8)	12.9**
고졸	85 (34.0)	173 (43.6)	
대학재학 이상	163 (65.2)	209 (52.6)	
본인 취업	49 (19.6)	121 (30.4)	9.3**
남편 취업	234 (93.6)	376 (94.5)	0.2
자녀교육 의사결정			17.1**
본인이 주로	85 (34.1)	200 (50.3)	
남편이 주로	8 (3.2)	10 (2.5)	
본인과 남편이 함께	130 (52.2)	163 (41.0)	
다른 가족이 주로	3 (1.2)	2(0.5)	
비해당	23 (9.2)	23 (5.8)	
어머니 생존	229 (91.6)	362 (91.0)	0.1
시어머니 생존	217 (86.8)	336 (84.4)	0.7

주: 둘째자녀의 임신 또는 출산 변수는 한국여성가족패널조사 2차와 3차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분석에 사용된 나머지 변수는 1차 한국여성가족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음.

주: † p<.1, * p<.05, ** p<.01, 괄호 안은 더미변수에서 기준범주를 나타냄. 상단패널(t 검증)에서 괄호 안의 수치는 표준편차, 하단패널(카이자승 검증)에서 괄호 안의 수치는 비율을 나타냄.

2) 1차조사가 아닌 2008년에 조사된 2차조사자료에 나타난 각종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이용한 분석결과 도 1차조사 분석결과와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먼저 연령은 둘째자녀를 임신/출산한 여성이 한자녀를 가진 여성에 비해 약 3세 정도 적었다. 상대적으로 젊은 여성이 둘째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가구소득의 경우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둘째자녀를 출산한 여성이 조금 더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평균연령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기혼여성의 결혼생활 만족도의 경우, 둘째자녀를 출산한 여성이 조금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관계가 좋을수록 배우자에 대한 신뢰와 배려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의사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남편의 가사분담에 대한 만족도는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다. 가족가치관과 관련하여 '결혼하면 자녀는 일찍 가져야 한다'는 진술에 대한 응답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첫째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이 많을수록 둘째자녀 출산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부담이 둘째자녀 출산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교육수준은 둘째자녀를 출산한 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취업과 관련하여 전업주부에 비해, 취업여성인 경우 둘째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편의 취업률은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다. 자녀교육 의사결정의 경우, 둘째자녀를 출산한 여성의 경우, 본인과 남편이 동시에 결정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자녀교육에 대한 남편의 참여가 둘째자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응답자의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생존해 계신다고 응답한 비율은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다.

나. 둘째자녀 출산요인 이항로짓분석

<표 8>은 3차조사 시점까지 둘째자녀를 출산한 여성(n=250)과 출산하지 않은 여성(n=398)이 어떤 특성에서 차이를 보이는지를 밝히기 위하여 이항로짓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나타낸다. 각종 독립변수는 2007년 1차조사에서 조사한 변수를 사용하였다.³⁾

3) 패널자료 분석, 특히 고정효과모델(fixed effect model)의 장점 중의 하나는 응답자의 변하지 않는 속성을 통제한 후, 독립변수의 변화가 종속변수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이다 (Halaby, 2004). 본 연구에서는 고정효과모델이 아닌, 1차조사에서 측정된 독립변수를 이용하여, 2차/3차조사의 임신/출산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이유는 1~3년의 시차를 두므로써 기혼여성의 생활경험이 임신/출산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인과적 선행관계를 좀더 엄밀히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로짓분석결과는 앞서 분석한 t검증 또는 카이제곱 검증 결과와 전반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여성의 연령, 취업여부, 자녀교육 의사결정, 결혼만족도, 사교육비 지출이 둘째자녀의 임신/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기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에 대한 이항로짓분석(n=648)

구분		회귀계수	표준오차
상수		-5.160**	1.352
연령(40대)	20대	4.021**	0.790
	30대	3.548**	0.776
교육수준(고졸 미만)	고졸	-0.195	1.043
	대학재학 이상	0.298	1.044
응답자 취업여부(미취업)		-0.461*	0.231
남편취업여부(미취업)		-0.176	0.417
가구상반기소득		-0.015	0.066
건강상태		0.150	0.124
자녀교육 의사결정 (본인)	남편	1.072†	0.638
	공동	0.540**	0.199
	다른 가족원	2.736†	1.660
결혼만족도		0.252**	0.088
가사분담만족도		-0.047	0.095
모친 생존여부(사망)		-0.391	0.347
시어머니 생존여부(사망)		-0.112	0.275
가족가치관		0.015	0.113
사교육비 지출		-0.017**	0.006
Log Likelihood		-347.9	

주: 둘째자녀의 임신 또는 출산 변수는 한국여성가족패널조사 2차와 3차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분석에 사용된 나머지 변수는 제1차 한국여성가족패널조사를 이용하였음

주: † p<.1, * p<.05, ** p<.01, 괄호 안은 터미변수에서 기준변수를 나타냄.

먼저 응답자의 연령이 적을수록 새로 임신/출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가임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한 추가임신과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부담감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자녀 출산연령이 증가하는

경향을 감안한다면 둘째자녀를 임신/출산할 비율은 앞으로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교육년수는 새로 자녀를 임신/출산할 확률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본인의 취업여부는 둘째자녀를 가질 확률과 부(-)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 즉 전업주부에 비해 취업여성의 경우, 둘째자녀를 임신/출산 확률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산계획과는 달리, 실제출산에서는 취업여부가 장애가 되는 상황을 보여준다. 후속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등의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신뢰할 만한 대리양육자를 구하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복귀후 고용 및 경력보장 등 취업여성이 겪는 경력상의 손실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남편의 취업여부, 가구소득, 건강상태 등은 둘째자녀 출산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⁴⁾

한편 자녀교육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기혼여성이 전담하는 것에 비해, 남편이 주로 하거나 남편과 함께 결정하는 경우에 자녀를 출산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⁵⁾ 자녀교육에 대한 남편의 참여가 이루어진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데 대한 정신적, 신체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자녀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다는 확신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또한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녀를 출산할 확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만족도는 양육에서 오는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작용을 한다(송영주 외, 2011). 따라서 후속출산에 대한 부담감을 낮출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남편의 가사분담에 대한 기혼여성의 만족도는 둘째자녀를 가질 가능성과 관련이 없었다. 앞서 출산계획 분석과 마찬가지로, 결혼생활 만족도를 제외하고 남편의 가사분

4) 소득은 자녀양육 및 교육비용 지불능력의 규모를 좌우한다. 따라서 소득이 높을수록 후속출산을 할 가능성이 높다(김하나, 2010). 본 연구결과는 소득이 둘째자녀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연구의 결과와는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분석대상으로 취업여성과 전업주부를 모두 포함한 것에서 기인할 수 있다. 전업주부의 경우, 가구소득이 후속출산에 영향을 준다. 그러나 취업모의 경우에는 소득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김종백·장영은, 2010). 따라서 취업모와 전업주부 모두 포함하여 분석할 경우, 가구소득의 후속출산에 대한 영향이 희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소득보다는 교육비용 등 자녀에 대한 소비지출이 둘째자녀 임신/출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5) 1차조사 자료를 이용한 출산계획 분석결과와 비교하면, 자녀교육 의사결정을 남편이 주로 하거나, 남편과 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 회귀계수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편의 자녀교육 의사결정 참여가 출산계획에 비해, 실제 출산유무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의미한다. 남편의 자녀교육 참여효과가 높게 나타난 이유 중의 하나는 패널분석사례(n=648)에서 남편 또는 남편과 공동으로 결정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차조사 출산계획분석(n=812)에서 조사된 비율에 비해 더 높기 때문이다. 1차조사에서 '여성 본인이 주로 결정한다'고 응답한 사례 중에서 패널자료에서 누락된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기 때문인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

담 만족도만을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둘째자녀 출산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어머니, 시어머니의 생존여부도 둘째자녀 출산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가치관과 관련하여 '자녀를 일찍 갖는 것이 좋다'는 진술에 대한 응답도 둘째자녀 출산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첫째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이 많을수록 둘째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부담과 걱정이 추가적인 자녀출산을 제약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VI. 결론

본 연구에서는 여성가족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둘째자녀 출산계획과 출산경험을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출산계획과 관련하여 한자녀를 가진 45세 미만 기혼여성의 약 45%가 출산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계획을 가진 기혼여성 중에서 약 80%가 2년 이내에 출산할 계획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계획을 가진 여성의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이 낮고, 결혼만족도와 남편의 가사분담 만족도가 높고, 남편 또는 부부가 자녀교육 문제를 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 출산계획을 가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환경과 관련하여 기혼여성의 어머니나 시어머니가 생존한 경우, 첫째자녀 교육비를 적게 지출할수록 출산계획을 갖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를 일찍 가져야 한다고 인식할수록 출산계획을 갖는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출산경험과 관련하여, 한자녀 기혼여성의 임신/출산 경험을 추적조사한 결과, 1차조사 이후 1년 또는 3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경험한 비율은 각각 약 24%, 39%로 나타났다. 한편 1차조사에서 출산계획을 지닌 기혼여성 중에서 1년 또는 3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경험한 비율은 각각 43%, 65%로 나타났다. 이러한 임신/출산과 관련된 요인은 출산계획과 관련된 요인과 대체로 유사하였다. 연령대가 낮고, 전업주부의 경우 출산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관계와 관련하여 결혼만족도가 높고 자녀교육에 관해 남편의 참여가 높은 경우 출산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교육비 지출이 적을수록 둘째자녀를 출산할 확률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출산이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가 지닌 다양한 사회경제적 상황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최근 결혼연령이 늦춰지는 추세는 대학졸업후 안정된 일자리를 얻기 힘들고, 신혼주택 마련 등 부모의 도움없이 결혼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롯된다. 이는 비정규직 일자리 증가 등 노동시장 문제, 부동산 문제 등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맥이 닿아 있다. 또한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등 자녀교육 문제는 출산 및 양육을 더욱 어렵게 하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효과적인 저출산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몇가지 시사점을 도출하면, 일차적으로 첫째자녀 출산을 앞당길 수 있는 인센티브 및 첫째자녀의 출산과 양육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한자녀 가정에게는 현재의 한자녀를 양육하는 부담이 매우 크고, 아직 결혼이나 출산을 하지 않은 커플에게는 첫 출산 자체가 부담일 수 있다. 특히 양육의 신체적 부담은 여성의 연령이 높을수록 클 가능성이 높으므로 둘째자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첫째자녀 출산시기를 앞당기는 것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기존의 세자녀 이상의 가정에게 제공하던 지원정책을 장기적으로 두자녀, 한자녀 가정으로 점차 확대하여 한자녀 및 무자녀 가정의 양육부담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제약조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둘째자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자녀와 둘째자녀와의 출산간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자녀 계획이 있어도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둘째자녀 계획을 미루게 될 경우, 출산간격이 길어지게 되며, 이는 둘째자녀를 계획할 연령을 높이게 하고, 결국 둘째자녀 출산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스피드 프리미엄(speed premium)제도는 둘째자녀 출산간격을 줄일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Anderson et al., 2005; Anderson, 2008). 취업모가 첫째자녀를 출산한 후 30개월 이내에 둘째자녀를 출산하면, 첫째자녀를 출산했을 때 받았던 수준의 육아휴직급여액을 둘째자녀 출산시에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Anderson, 2008). 스피드 프리미엄과 같은 둘째자녀 출산간격을 줄이는 방안은 둘째자녀를 계획했으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포기하는 여성들의 욕구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제도의 주요 수혜자는 취업여성이다. 가정양육을 하는 여성에게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취업여성의 경우, 임신/출산부터 출산후 양육 전반의 과정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분석결과 취업여성의 경우 둘째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전업주부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이는 여전히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에 따른 상당한 경력개발에서의 손실이 존재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일과 가정의 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임신과 출산에 유리한 직장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신뢰할 수 있는 보육시설의 확충,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의 자유로운 활용 및 이러한 제도의 활용이 직장생활 복귀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분석결과 결혼만족도 뿐만 아니라, 남편의 자녀교육 의사결정참여가 둘째자녀 출산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남편의 자녀교육 및 가사노동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도 확대 등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정책 개발이 요청된다. 적극적인 양육참여가 여성이 둘째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사와 양육참여에 대한 남성의 적극적이고 공정한 역할분담에 대한 인식이 동반되어야 한다. 남편의 인식전환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남편의 육아휴직 이용이 양육참여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의 확대와 더불어 남성들의 가사 및 양육분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요청된다.

첫째자녀 사교육비 투자비용이 많을수록 둘째자녀 출산에 부정적이라는 연구결과는 자녀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자녀 출산을 꺼리는 주된 이유는 임신, 출산에서부터 대학진학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경제적인 비용이 든다는 점이다. 또한 한자녀를 가진 젊은 연령층의 부부는 고용불안과 낮은 소득으로 인해 이러한 비용에 대해 상당한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둘째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출산지원 및 보육료 지원 등 자녀양육비용을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자녀 양육시기부터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나 핀란드에서는 첫째자녀부터 국가의 출산 및 양육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Caisses d'Allocations Familiales, 2009;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2013). 일본에서도 둘째 자녀에 대해 아동수당을 지급해오던 것을 1990년 이후에는 첫째자녀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였다(이재완 · 최영선, 2006). 우리나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양육비 지원정책은 대부분 셋째자녀 이후의 출산에 집중되어 있다(연합뉴스, 2012). 재정자원의 제약으로 인해서 두자녀를 이미 출산한 다산가정에

게 주로 양육지원이 제공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둘째자녀 출산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의 실효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출산지원 정책을 세자녀 가정에서 두자녀, 한자녀 가정으로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첫째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은 인센티브 방식의 일회성 지원보다는 장기적인 양육지원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출산에 대한 지원은 출산포상의 형태로 일시적인 현금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일시적인 현금 지원보다는 자녀양육비용을 장기간 지원하는 방식이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으로써 실효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5세 이하 무상보육 등 일종의 양육수당제도에 관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양육수당제도는 아동이 안정적인 양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여건을 형성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출산율 증가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형평성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양육수당이 현실적인 수준으로 확대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양육수당의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양육환경에 유리한 여건들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라는 압력은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위해 일회성 지원보다는 장기적이며, 안정적인 양육지원의 형태가 실효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은 우리사회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두 자녀는 낳아야 한다'는 양육규범이 확산되는데 일조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곧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결혼만족도와 가족갈등과 같은 부부관계 요인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특성을 포함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가족관계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아버지 개인의 특성이 중요한 변인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조건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증가하는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취업모와 전업주부의 둘째자녀 임신 및 출산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리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취업여성과 전업주부의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 두 집단을 분리하여 두 집단간 둘째 자녀 임신 및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유진(2007). 둘째자녀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가치관 및 가족관계 요인. 한국지
역사회생활과학회지, 18(4), pp.639-653.
- 김두섭 외(2007).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대응 연구: 저출산 사회의 결혼 자녀양육과 가족생활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정, 정계숙, 박희경(2010). 다자녀 계획이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연구. 제1회 한국
아동패널 학술대회자료.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김정석(2007). 기혼여성의 출산아수별 추가출산계획. 한국인구학, 30(2), pp.97-116.
- 김하나(2010). 여성의 결혼, 출산자녀 수 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회경제적 요인분석. 제2회
여성가족패널 학술대회논문.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종백, 장영은(2010). 기혼여성의 후속출산의도에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 제1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자료.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정, 이성림, 이완정, 김하나(2011). 소득계층별 출산·양육 행태 분석 및 정책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류기철, 박영화(2009). 한국여성의 출산을 변화와 출산간격 영향요인. 한국인구학, 32(1),
pp.1-23.
- 박수미, 이택면(2008). 2008년 여성 가족 패널 조사 사업 보고서 및 제1차 기초
분석 보고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보건복지부(2005). 새로마지 플랜 2010.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10).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새로마지 플랜 2010. 서울: 보건복지부.
- 서문희, 안재진, 최혜선, 소마나오꼬, 안진(2009). 영유아 양육비용 지원의 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서미정(2010). 유아녀 여성의 후속 출산계획에 대한 양육관련 요인의 영향. 제1회 한국아
동패널 학술대회.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송영주, 이주옥, 김춘경(2011).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후속출산계획 관련 심리사회적
요인 탐색. 열린유아교육연구, 16(3), pp.185-206.
- 송유미, 이제상(2011). 저출산의 원인에 관한 연구 :산업사회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진출
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1(1), pp.27-61.

- 신윤정(2008). 보육·교육비 부담이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건사회연구, 28(2), pp.103-134.
- 신인철(2009). 기혼여성의 자녀출산계획에 대한 공간효과 분석. 한국인구학, 32(2), pp.59-85.
- 안재진(2011). 부의 양육참여가 출산 후 초기 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부부관계의 질을 매개로. 한국아동복지학, 35, pp.127-158.
- 연합뉴스(2012.03.12). 多産가정 늘었다…셋째아 이상 출산 급증, 연합뉴스 인터넷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3/09/0200000000AKR20120309167600002.HTML>에서 2012. 3. 12 인출.
- 윤소영 (2005). 저출산 가정의 출산율과 여성취업 경험.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2), pp.159-166.
- 이삼식, 신인철, 조남훈, 김희경, 정운선, 최은영 외(2005).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서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 최효진, 오영희, 서문희, 박세경, 도세록(2010).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 이소정(2011). 2011년도 저출산·고령화 대응정책의 변화와 전망. 보건복지포럼.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재완, 최영선(2006). 세계의 아동수당제도. 서울: 양서원.
- 이정원(2009). 유아녀 취업여성의 후속출산의도 결정 경로 분석-가치관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연구, 40(1), pp.323-351.
- 이택면, 김승연, 우원규, 이주영, 강석훈(2009). 2009 여성가족패널조사 사업보고서 및 제2차 기초분석 보고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택면, 이택면, 주재선, 김승연, 강석훈, 민현주(2011). 2010년 여성가족패널조사 사업보고서 및 심층분석보고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임현주, 이대균, 최항준(2011). 부부특성, 출산관련 정서, 어머니의 정서특성이 후속출산 계획에 미치는 변인탐색-구조방정식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1(5), pp.183-202.
- 조병구, 조윤영, 김정호(2007). 출산지원정책의 타당성 및 지원효과 분석.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 조영태(2009). 서울시의 저출산 현상 분석: 인구학적 접근. 서울시 저출산 대응 국제정책 포럼. 서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정성호(2012). 저출산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학*, 35(1), pp.31-52.
- 정혜은, 진미정(2008). 취업여부에 따른 기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의도. *한국인구학*, 31(1), pp.151-168.
- 차승은(2008). 부모역할의 보상/비용과 둘째 자녀 출산계획: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 33(1), pp.111-134.
- 최윤경, 장영은(2010). 후속출산 비의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완결출산으로서의 자녀수를 고려하여. 제1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자료.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2010-2060*. 서울: 통계청.
- 통계청(2012). *인구동태통계연보 (혼인, 이혼편)*. 서울: 통계청.
-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 pp.179-211.
- Anderson, G., Hoem, J. M., Duvander, A. (2005). *Social differential in speed-premium effects in childbearing in Sweden*. Stockholm: Institute for Demographic Research.
- Anderson, G. (2008). A review of policies and practices related to the highest-low fertility of Sweden. *Vienna Yearbook of Population Research*. pp.89-102.
- Blau, D. M., Robins, P. K. (1989). Fertility, Employment, and Child-Care Costs. *Demography*, 26(2), pp.287-299.
- Brodmann, S., Esping-Andersen, G., Güell, M. (2007). When Fertility is Bargained: second Births in Denmark and Spain.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3(5), pp.599-613.
- Caisses d'Allocations Familiales (2009). *Vos prestation 2009 France*: Caisses d'Allocations Familiales.
- Del Boca, D. (2002). The effect of child care and part time opportunities on participation and fertility decisions in Italy.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5(3), pp.549-573.
- Haan, P., Wrohlich, K. (2011). Can child care policy encourage employment and fertility?: Evidence from a structural model. *Labour Economics*, 18(4), pp.498-512.
- Halaby, C. N. (2004). Panel Models in Sociological Research: Theory into Practice. *Annual Review of Sociology*, 30, pp.507-544.

- Ministry of Social Affair and Health (2013.01.21). *Supports families with children*. Finland:<http://www.kela.fi/in/internet/suomi.nsf/Docs/110701111752EH%3FOpenDocument&usg=ALkJrh59poAjifskX5oFuleDrcN06FYGA>에서 2013.01.21. 인출.
- Ogawa, N., Mason, A., Chawla, A., Matsukura, R., Tung, A. (2009). Declining fertility and the rising cost of children. *Asian Population Studies*, 5(3), pp.289-307.
- Schoen, R., Astone, N. M., Kim, Y. J., Nathanson, C. A., Fields, J. M. (1999). Do fertility intentions affect fertility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1(3), pp.790-799.
- Torr, B. M., Short, S. E. (2004). Second births and the second shift: A research note on gender equity and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0(1), pp.109-130.

정은희는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연구실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관심분야는 아버지의 양육참여, 빈곤 및 저출산 분야이다. 현재 빈곤의 다차원성 및 세대간 이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E-mail: ehjoung@khasa.re.kr)

최유석은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관심분야는 사회복지행정 및 정책 분야이다. 현재 복지의식의 국가비교, 세대간 경제적 지원, 고령화의 정치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E-mail: yschoi@hallym.ac.kr)

부표 1. 1차조사 출산계획과 관련된 요인, 이항로짓분석(n=812)

		회귀계수	표준오차
상수		-5.048**	0.902
연령(40대)	20대	3.076**	0.381
	30대	2.085**	0.318
교육수준(고졸 미만)	고졸	0.096	0.659
	대학재학 이상	0.509	0.661
응답자 취업여부(미취업)		-0.038	0.203
남편취업여부(미취업)		-0.205	0.354
가구상반기소득		0.036	0.057
건강상태		0.112	0.105
자녀교육 의사결정	남편	0.977†	0.582
(본인)	공동	0.452*	0.175
	다른 가족원	0.387	1.217
남편 가사분담 만족도		0.193*	0.080
모친 생존여부(사망)		0.665*	0.297
시어머니 생존여부(사망)		0.527*	0.253
가족가치관(자녀는 일찍)		0.286**	0.100
사교육비 지출		-0.020**	0.005
Log Likelihood		-434.5	

주: † p<.1, *p<.05, **p<.01

The Factors Associated with the Birth Plan for Second Child and Second Birth for Married Women in Korea

Joung, Eun He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Choi, You Seok

(Hallym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factors related to birth plan for second child and second birth for married women in Korea. It utilizes three waves of the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y(KLoWF). Regarding the birth plan for second child, married young women who are more satisfied with marriage life and their husbands' participation in housekeeping are more likely to have the plan for having second child. The probability of having plan for second child is higher for women with living mother or mother-in-law and traditional family values. Married women who spent less private education expenses for their first child are more likely to have the birth plan for second child. Findings from the analysis on the second birth show that married women with young age, higher satisfaction on marriage life and their husbands' participation in child education are more likely to give birth to their second child. Compared with working mothers, mothers staying at home are more likely to have second child. Higher level of private education expenses for their first child decreases the likelihood of the second birth.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to increase second births for married women in Korea.

Keywords: Low Fertility, Second Birth, Fertility Plan, Fertility Behavior